

2019년 11월 시청자위원회

2019년 11월 26일 (화) 오후 4시

대전MBC 대회의실

참석 : 김선재 시청자위원장, 권부남 부위원장, 서한나 위원, 양흥모 위원, 양선희 위원

신원식 대표이사, 이재근 경영국장, 박선자 편성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미디어전략국장, 정수진 방송기술센터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개회

회사 대표 인사 :

11월 말이 되니, 한해가 빨리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각 기관마다, 내년 예산 작업이 한창입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니어서 내년도 계획기과 예산으로 분주한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내년도 많은 성과를 내는 한해를 준비하겠습니다.

시청자위원 대표 인사 :

빠른 한 달, 빠른 일 년입니다. 대전MBC도 대전 충청 지역의 문화창달을 위하여 쉽 없이 달려온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2020에도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의 :

서한나 위원 :

저는 노정렬의 시시각각을 즐겨보는데, 사회자의 진행능력이 점점 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전반적으로 잘 정리된 프로그램이지만, 패널 구성의 문제는 지난 몇 달간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어 아쉽습니다. 지난 24일 방송된 반복되는 연구실 사고에 대한 방송에서 학생의 부모님과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만 나와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당사자인 학생의 연령대가 출연해도 좋지 않았나

합니다. 17일 방송에서도 전부 남성의 농민만 출연해서 아쉬움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오롯이 당신과 관련해서, 가수 섭외가 정말 잘되고 있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층들의 선호도가 높은, 실력 있는 가수를 좀 더 방송에서 자주 보았으면 합니다.

유지은 아나운서, 관련해서 아직도 시청자들의 관심과 논란이 많아, 보다 빠른 대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부남 위원 :

노정렬의 시사각각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1월 3일 방송된 대입정시확대 관련해서는 여설패널이 3명이 등장하여, 대입정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는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이야기들이 많이 방송되어 흥미있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방송된 10일 생활 방사능 문제와 17일 농업문제에서 전부 남성 패널들만 등장해서, 여성 패널을 구하기 어려운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여성인재 등록 시스템을 진행중인데, 가능하면 이런 인력풀도 이용해서, 출연자의 성비를 좀 더 맞추었으면 합니다.

3일 방송된 대입정시 확대 문제는 화면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적재적소에 분할해서 깔끔한 프로그램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보와 정책을 주도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작부문의 내가 그리는 세상은 유튜브로 시청하였는데, 청년들이 만드는 다양한 콘텐츠가 좋았습니다. 특히, 16일 방송된 친구가 준 기프티콘 편은 아주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특색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았으면 합니다.

17일 방송된 공영주차장 문제는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좋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영주차장에서 저녁이 되면 먼저 선불을 받는 문제는 작은 일이지만,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을 자주했는데, 문제제기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뉴

스에서 이런 아이টে을 만나 반가웠습니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터치하는 뉴스,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롯이 당신 이달의 PD 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양흥모 위원 :

‘크리에이터 성장기 ‘독전’의 2019 MBC 계열사 프로그램 경연대회 특별상 수상과 ‘더 콘서트 : 오롯이 당신’의 이달의 피디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뉴스보도에서 천안 일봉공원 농성 관련 보도 제목이 “일봉공원 민·민갈등..환경청장 현장 조사”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도시공원 일몰제와 사업추진 방식과 절차인데 주민간의 갈등으로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 KBS 대전총국은 “금강유역환경청장, 천안 일봉산 고공시위 현장 방문”으로, TJB대전방송은 “금강환경청장, 일봉산 고공 단식농성장 찾아 중단 촉구”로 제목을 뽑아서, 환경영향평가만 소개한 내용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이 SNS에서 대전MBC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근래들어, MBC 본사는 뉴스데스크와 PD수첩, 스트레이트 등 최근 공정한 뉴스 보도와 깊이 있는 탐사 보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대전 MBC도 사라진 시사 보도프로그램과 새로운 뉴스 포맷 등 보도 부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역 시청자들과 소통과 참여를 통해 새로운 시사보도 기획을 하면 좋겠습니다.

양선희 위원 :

ADD 폭발사고 관련 보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4일, 18일 ADD 폭발사고 관련 보도의 ADD 관계자들의 인터뷰에서, 실험에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과 안이한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실험물질의 폭발 가능성에 대해 리포트에서 언급되기는 했으나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반박했다면 문제점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고, 신뢰성/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었을 것 입니다.

15일 '충남 정치 1번지' 빨라진 선거시계와 18일 천안·세종발 총선 구도 변화 예고, 두 건의 뉴스에서 모두 전문가 취재원으로 배재대 최호택 교수가 등장합니다. 유사한 성격의 뉴스에서 동일한 취재원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취재원의 다양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20일 방송된 미세먼지, 금강보 등 환경 분석 보도에서 환경 관련 아이টে이라는 공통점만 있을 뿐 전혀 다른 내용의 뉴스(미세먼지, 금강보)를 어떠한 전환이나 구분 없이 하나의 리포트에서 다뤄 매우 어색하게 느껴졌고, 금강보 관련 뉴스는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한중일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에서 12개 도시 중 대전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미세먼지 유발 원인을 시각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이해가 용이하게 보도되었지만, 금강보 개방 후 녹조가 95% 감소했다는 뉴스가 하나의 리포트 안에서 다루어진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

인력풀 관련해서 각 기관마다 인재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관련해서도 내부에서 출연자 인력풀을 풍부하게 준비해서, 패널의 남녀 구성과 연령 층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작업은 쉽지는 않지만, 꼭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시시각각의 정시확대 논란 부분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대입에 관련된 문제라서 관심있게 보았습니다. 정시모집 확대에 대한 문제는 다양한 이해가 걸린 문제라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ADD에서의 안전사고 문제관련해서, 우리지역에는 안전사고 관련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대학의 경우는 위험한 요소가 더 많습니다. 24시간 실험실을 가동하고, 겨울이면 난방까지 더해서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대학내 안전사고 문제를 짚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건강플러스 관련, 11월 6일 방송분인 대장암, 시금치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 링크에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오프닝에서 대장암 관련 해당 주제와는 관련 없는 오프닝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주제와 관련된 간단한 멘트 정도면

적당할 듯 합니다.

보도 부문에서는 아침뉴스를 자주 보는데, 날씨 부분에서 오늘의 해당 날짜를 같이 자막으로 표시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날씨와 함께, 해당 일을 명확하게 표시하면, 더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답변 :

박선자 편성국장 :

오롯이 당신은 현재 프로그램 제작 종료후, 현재 앙코르 방송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플러스의 유튜브 링크문제는 실무팀과 확인해, 조치하겠습니다.

신영환 보도국장 :

노정렬의 시사각각, 남녀 성비 편중 문제는 여러 달 반복 지적된 문제로 저희도 이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고,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론 프로그램은 패널구성이 프로그램의 질과 내용을 좌우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초론 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진 섭외부터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꼭 나오셨으면 하는 분들부터 섭외를 들어가는데, 1순위 2순위 섭외 대상자가 지나가면서, 남녀 성비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DD 관련 안전사고 문제에서 대학 연구실도 언급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관련 시설들이 많아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침뉴스 날씨 부분에서 날짜를 표시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

유지은씨 관련 제기된 문제는 지난 21일 시민단체와의 설명회에서 회사의 입장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요구사항을 전부 수용하기는 어려운 회사의 현실에 대해 보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원식 :

남녀 성비를 맞추는 문제는 현업에서는 스트레스일지 모르지만, 필요한 스트레스라는 생각입니다. 기계적인 성비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노력을 더 할수록 개선될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해주실수록, 개선이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여성들도 주체적으로 직접 나서는 모습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

12월에는 모든 위원들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